

■ 모범의원상 - 이재오 의원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14년 전통의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국정감사 모범의원상을 받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같이 상을 받게 된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5선 국회의원이지만 매년 국정감사를 앞두고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방대한 조직력으로 무장한 행정부에 맞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입안되고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은 참으로 지난(至難)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로서 부여받은 사명을 완수하고 저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신 국민 여러분의 뜻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항상 초선 의원 같은 열정과 마음가짐으로 국정감사에 임해왔습니다.

이번 2012년 국정감사는 ‘국민의 눈으로’라는 테마로 행정 권력의 발현이나 정책시행 과정에서 국민에게 피해나 불편을 끼치는 점이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또한 각 부처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나 공직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지적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보다 엄격히 처벌하도록 주문했습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행정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에 의지하기 보다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실제 제 눈과 귀로 보고 듣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행정부에 가감 없이 전달하기 위해 영상자료를 통해 각 부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매년 느끼는 것이지만 20일 남짓한 짧은 기간에 산적한 많은 과제들을 해결해야하는 국정감사는 항상 깊은 아쉬움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제게 국정감사 모범의원이라는 큰 상을 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도 더 노력 할 수 있었던 여지가 있지는 않았나 반성해봅니다.

끝으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의원들의 활동을 꼼꼼하게 점검해 주신 평가위원님과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모범위원상 - 홍문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문종 위원입니다.

바쁘게 2013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한 해를 돌아보며 좋은 결실을 맺고, 더 나은 2014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희망으로 가득한 날들로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2013년도 국정감사 종합평가회 및 모범·우수국회의원 시상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모범·우수국회의원에 선정되신 모든 의원들님께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따듯한 격려에 그치지 않고, 270여 시민·사회단체의 엄정한 기준을 거친 평가회의 내용을 겸허히 수용하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국정운영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다짐을 견고히 자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2013년도 국정감사 모범의원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기쁜 마음보다 겸허한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저한테 있어서 2013년은 그 어느 해보다 격변의 한 해였습니다. 당의 사무총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고 상임위원회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바뀌면서 모든 부분에서 미흡함이 있지 않았나하는 반성을 하게 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큰 상을 주신데에는 국민 여러분들이 제게 주마가편의 자세로 더욱 의정활동에 매진하라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국정감사에 임함에 있어 창조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을 제안하고자 3D프린터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다양한 정책자료집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의 실생활에 접해있는 스마트폰 불법 스팸 신고기능 도입과 폰파라치제도 확대 등을 이끌어 내는 소기의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상임위 차원에서 해결해야만 하는 주요 현안들이 산재해 있다고 봅니다. 오늘 주신 이 상에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2014년에는 한층 더 발전된 모습으로 국민들의 삶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에게 국정감사 모범의원이라는 영광과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언제나 국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오늘 의 기쁨과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사무총장 홍문종

■ 박영선 법사위원장 국정감사 우수위원장상

안녕하세요. 박영선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수여하는 국정감사 우수위원회로 선정되고, 법사위원장으로써 국감 우수위원장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상은 전국 270여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구성한, 1천여 명의 온·오프라인 모니터단의 평가 결과로 수여되는 상이기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애써주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법사위 국정감사는 이제는 잠언이 된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선생의 말씀인 "세상 사람이 다 부정의에 빠져간다 할지라도 우리 법관만큼은 정의를 최후까지 사수하여야 할 것이다."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가르침대로, 이번 법사위 국정감사는 최후까지 정의를 사수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흔들리는 정의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깊은 우려와 관심 속에서, 법사위 위원들과 각 소관기관들은 어떻게 이 고귀한 정의를 사수하고 국민과 국가가 한 마음으로 정의로운 내일로 나아가야 할지를 끊임없이 논의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높이 평가해주시고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은 어렵지만 잃는 것은 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이룬 소중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용기와 힘이 모아져야 하겠습니다.

흔들리는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훗날 2013년 법사위 국정감사가 대한민국을 바로세우는 국정감사로 기억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저는 법사위원장으로서 정의를 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내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박영선 올림

■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의원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너무 과분하게도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큰 상을 계기로 앞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개선하고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는 나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이번 2013년 국정감사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반 년의 공과를 점검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펼칠 정책에 대해서 점검하는데 의의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정책질의에 방향을 맞추어 국정감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국정감사기간동안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서 법을 잘 지키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불법 시위에 대해 관대한 처벌태도에 대한 질의, 조폭들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검찰, 법원 등에서 억울하게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질

의에 대해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서 높게 평가해주셨습니다.

수상소감을 빌어 20일 동안 밤늦게까지 계속된 국정감사장에서 국정감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자리를 지켜주셨던 많은 모니터위원 및 평가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있어 초심을 잃지 않고 나라의 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해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법제사법위원회 김학용 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13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18대 국회인 2009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더욱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무엇보다 기관이나 언론이 아닌 객관성과 공신력을 갖춘 270여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받는 상이기에 그 어떤 상보다 값진 상이라 생각합니다. 민의를 대변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국감에서 제가 속한 법제사법위원회는 국정원 선거 개입 등 각종 정치 현안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물론 정치 현안에 대한 지적도 필요하지만 국정감사가 민생 현안과 정책 이슈가 아닌 정치 공방으로 채워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생과 정책 현안,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올바르게 개선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해 일회성 감사에 그치지 않도록 노력했으며, 국민의 시각에서 사법부가 국민에 봉사하기보다 군림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짚어보았습니다.

이 같은 활동은 모두 ‘국민들의 법감정과 눈높이’를 의정활동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19대 국회에서도 겸허한 자세로 민생과 서민을 챙기며, ‘국민과 소통하고 믿음을 주는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또한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자만하지 않고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든든한 시민 여러분의 뜻을 바탕으로 국민민복을 위해 소신 있는 의정활동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배전의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3년 12월 10일 국 회 의 원 김 학 용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위원)

■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석입니다.

NGO 모니터단이 수여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을 수상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시민들께서 직접 평가하고 주신 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이라 여기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입니다. 행정기관이 1년간 법과 국민에 의해 위임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였는지를 평가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올해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지난 어느 때보다 정치적 쟁점이 많았습니다. 4대강 사업을 비롯해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각종 공안관련 사건 등 여야의 견해가 첨예가 대립되는 현안들로 인해 파행의 위기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법사위 간사로서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노력했고,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이 위협당한 사안에서는 추호의 물러섬 없이 질의했습니다.

오늘 수상을 계기로 국회의원으로 기본적 역할을 되새기겠습니다. 현장에서 시민들의 아픔을 듣고 이를 해결하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을 만들겠습니다.

법률 소비자 연맹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어귀로 소감을 마칠겠습니다. 사법정의는 좋은 정부의 가장 튼튼한 기둥입니다. 그 기둥을 세우기 위해 매 순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이 춘 석

■ 정무위원회 김영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안산 상록(을) 국회의원 김영환입니다.

우선 2013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보람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2011년 지식경제위원회 우수위원장으로 선정되었고, 2012년에 정무위원회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된데 이어, 올해까지 4년 연속으로 상을 수상하는 과분한 영광을 받게 된 것은 저를 성원해 주신 분들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총괄하고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15년 전통의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평가·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이라 그 기쁨이 두 배입니다. 1,000여 명의 모니터단 여러분,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 국회가 한 단계 발전된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2013년 국정감사를 돌아보면 동양 사태, 국가보훈처의 대선 개입 의혹 등 주요 현안은 물론 금융정책, 민생 및 서민경제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타 의원들과는 차별화된 접근을 하려고 했고,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히 하고 실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원칙을 견지했습니다.

그 결과 ‘현안’과 함께 ‘정책중심’, ‘국민우선’의 국감이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주요 현안에 있어선 정부 관계 당국도 파악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밝혀내고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현안이 있는 국감>이 됐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호응을 얻어내는 <정책이 있는 국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아픈 곳을 실제 정책으로 개선해나가는 <국민이 있는 국감>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 정무위 국정감사기간 동안 지적한 사항에 대해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며, 추후 발견되는 사안에 대해선 충실히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2013년 국정감사는 끝이 났지만 계속해서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무위원회 박대동 의원

19대 국회에 등원하면서 가슴에 새긴 초심을 잃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참일꾼이 되도록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는 와중에 이처럼 2년 연속으로 과분한 상까지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국민의 대표로서 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기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대선 이후에 치러지는 첫 감사로서 정부기관의 선거개입 논란 등에 따른 치열한 정쟁으로 인해 파행을 거듭하며 정상적인 감사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정무위원회는 동양그룹사태라는 메가톤급 이슈발생과 보훈처의 대선개입 의혹 논란으로 인해 균형 있는 감사진행이 쉽지 않았으나, 저는 침체된 국가경제와 어려운 서민경제의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진단과 분석을 통해 정부와 함께 대안을 마련하는데 전력을 다했고 이러한 부분이 높게 평가 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작년 감사에서 지적했던 문제점에 대한 시정여부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미진한 부분은 재촉구하여 국정감사가 일회성 지적이 아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의 장이되도록 노력했으며, 충실한 감사를 위해 회의 시간 내내 이석하지 않고 다른 의원의 견해와 정부 입장에 대해 경청하며 성

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했습니다.

앞으로도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민을 대표하여 오랜 국정감사기간 동안 고생하신 모니터단 자원봉사자 여러분과 김대인 총괄단장 및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 12. 10 국회의원 박 대 동(새누리당, 정무위원회)

■ 정무위원회 신동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서울 강동갑 신동우 의원입니다.

먼저, 전국 270개 NGO가 함께하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2013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된 것을 더할 나위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땀땀한 국정감사 전 과정을 함께하신 천여 명의 모니터단 여러분의 노고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저를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는 지역주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저는 정무위원회와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쟁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로 국민이 호응하는 생활밀착형 내용들을 다루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잡아 진정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국정감사를 하고자, 중단된 재건축 활성화 방안 제시, 현대·기아자동차의 독점구조에 따른 국내외 차별에 대한 시정 촉구, 금융결제원을 통한 신용카드 수수료인하, 고액 전세권자에 대한 전세보증제도의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부족한 저의 이런 노력을 높이 평가해주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과 국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여러분께서 필요로 하시고 응원해주시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12. 국회의원 신 동 우

■ 기획재정위원회 이한성 의원

새누리당 문경·예천 이 한 성 의원입니다.

먼저, 이처럼 의미 있는 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꼼꼼히 살피고 평가해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재정누수 문제, 대기업 비과세

감면 등 조세지원 제도의 적정성 여부 점검, 조세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형평성 강화, 서비스산업 육성 등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등 경제, 재정, 조세 정책 각 분야에 있어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잡힌 정책적 대안제시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해 도입된 증여세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중견·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대기업계열사에 대한 과세는 제대로하지 못하는 문제 등 잘못 설계된 제도로 인해 중견·중소기업이 피해를 입는 문제점을 비롯한 법령상의 미진한 점을 찾아내는 데 무게중심을 두었고, 재정 및 조세 분야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찾는데 주력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제시한 정책 과제와 제도적 개선 사항들이 실제로 정부 정책에 반영되고 실현이 되는지를 앞으로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제도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입법과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등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정감사 기간동안 고생 많으셨던 피감기관 관계자분들, 기자 여러분과 우리 국회 보좌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제게 주신 이 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 의원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의정활동을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경남 진주 갑 출신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입니다.

먼저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공신력과 권위를 갖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뽑히게 되어 영광과 기쁨의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올바른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을 대신하여 날카로운 눈과 귀로 국정감사 기간을 함께 해 주셨던 자원봉사 모니터단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창조경제 구현’으로 ‘국민행복 시대’를 여는 박근혜정부 첫 국정감사였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목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공감하고 국민이 고쳐나가는 국정감사’로 세우고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된 앱을 사용자가 삭제할 수 없다는 지적에 정부와 업

체의 시정을 이끌어 낸 점, 절전형 TV 셋톱박스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없다는 지적에 에너지 효율등급 추진 및 절전형 모델 개발 동기를 부여한 점, 특히 정부의 홍보부족으로 아날로그 무선전화 사용자들이 내년부터 범법자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한 관련 보도기사에 국민들께서 무려 1만4천여개의 의견을 개진해주셔서 정부의 단속유예 약속을 받아 낸 점들은 국민과 함께 하고자 했던 국정감사 목표에 부합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부분이라고 평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구호보다는 국민과 소통하면서 작은 것부터 함께 이루어 나가는 생활정치를 구현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더욱 엄중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더욱 정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올바른 의정활동을 이끌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박대출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성북갑 국회의원 유승희입니다. 부족한 저를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높게 평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2년 연속으로 NGO단의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국정감사 및 의정활동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신 NGO 모니터단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천명의 모니터단 여러분들이 평가해서, 시민들께서 주신 상이기 때문에 그 어떤 칭찬보다도 더 뜻 깊게 다가옵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현장국감,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택배기사들이 일하는 우체국 현장, 원자력발전소 현장을 돌아봤고, 국민들과의 간담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모든 정책의 시작도 현장이며, 대안도 현장에서 나온다는 믿음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다짐을 했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는 민생국감,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돌보겠다는 원칙이었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우체국 택배원들의 어려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눈물,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들의 목소리 등 우리 사회 율(乙)인 국민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어느 때에 비해서 이 분들이 억울한 상황이 국정감사장에서 논의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정감사의 지적 사항들이 추후에 예산과 2014년도 정부의 사업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국정감사 후 예산안 평가에 있어서,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상시 국감을 한다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국정감사를 마치고 나니 해야 할 책무가 더 늘어난 듯합니다. 더 마음이 바빠집니다. 오늘 NGO 모니터단에서 주시는 우수위원 상은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여기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민의를 대변인이 되도록 늘 귀와 마음을 열어두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

■ 조선의원의 눈에 비친 국정감사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이고, 국회의원으로 경험한 두 번째 국정감사를 마쳤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 25년 정치부 기자로서 여·야를 모두 출입하면서 국정감사 현장을 여러 차례 지켜봤지만, 언론인의 입장에서 보던 국정감사와 직접 국회의원이 돼서 치른 국정감사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외부의 관찰자로서 지켜본 국정감사는 의례적이고, 보여주기 식이며, 수박 겉핥기로 비쳤습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인 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두 해 동안 실제 경험한 국정감사는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그래도 필요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행정부의 비효율과 문제점을 찾아내고, 나름대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때는 밤을 새면서 준비하는 등 강도 높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실시되는 국정감사는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행정부의 잘못을 시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 매년 반복되는 도돌이표 국감

매년 국감에서 지적되던 내용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또 지적되고 피감기관은 상투적인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NGO모니터단 집계에 따르면 똑같은 질문과 답변이 반복되는 사안이 지난 18대 국회부터 지난해까지 561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도돌이표 국감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행정부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챙기는 국회의 모니터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부의 피감기관은 국정감사 때만 적당히 넘기면 된다는 안이한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국정감사가 실효성 없는 일과성 정치행사로 그치고 만다는 비난을 듣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제도적 보완이 필요

이제 국회는 국정감사의 명암과 장단점을 깊이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게끔 고칠 것은 신속하게 고쳐야 합니다. 먼저, 의원들이 공부와 연구를 많이 해서 전문성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의원 개개인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들이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하신 분들이지만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는 분야가 매우 광범위하다 보니 전문성의 한계를 드러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의원지원조직인 입법조사처나 예산정책처가 보다 적극적으로 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국회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문제가 매년 국감에서 똑같이 지적되고 있지만 그것이 잘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국회의 사후 감시기능이 약하고 의원들의 관심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기관에 대한 명확한 시정조치 의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국회는 국정감사에 따른 시정요구 유형을 구체화하고 행정기관을 보다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미국과 영국 모두 의회 산하에 감사원(GAO, General Accounting Office)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GAO가 모든 국가기관의 회계 검사와 직무 감찰을 담당하면서 세금(예산)이 적절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은 없는지, 비리는 없는지 등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개정사항이지만 행정부의 관료적 타성과 그로 인한 각종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정치권이 지금부터 국민의 여론을 수집하고 논의를 시작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여당일수록 정부 정책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국정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신 NGO모니터단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년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성남 수정구 출신 김태년 국회의원입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덕분에 올해 국정감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먼저 매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격려해 주시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국 27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15년동안의 경험과 정밀하고 공평한 평가방식으로 심사해 수여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은 모든 국회의원들이 가장 받고 싶어 하는 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매우 빠빠하게 진행되는 감사일정에 호흡을 같이 하며 전 과정을 엄정하게

평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을 줄로 압니다.

15년동안 한결같이 국회와 정부의 기능 회복과 강화를 위해 일선에서 힘써주시는 NGO 모니터단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으로 교육부와 문체부 소관기관 감사를 위해 국회에서 숙식하며 24시간 비상체제로 국정감사에 매진했습니다.

고달프기도 했지만 그만큼 소정의 성과도 남겼습니다.

교육부 감사에서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꼼꼼히 짚어 잘못된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에 만족하지 않고 “역사왜곡과 부실·불량”으로 점철된 역사교과서가 일선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습니다.

문체부 감사에서는 각종 펀드와 기금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였고, 특히 문화재청 감사에서 국보 1호 승례문의 부실한 복구와 관리 상황을 파헤쳐 승례문 종합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지시하도록 이끌어 냈습니다.

이제 올해 국정감사 기간이 끝났습니다만, 국회의원으로서는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책무는 언제든지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더불어 민주,민생,평화의 대만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서민과 중산층이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믿고 국회에서의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성남수정구 지역주민들께 이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사오고 싶은 수정구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던 초심을 잃지 않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지도와 편달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김태년 올림-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서울 송파갑 출신 박인숙 국회의원입니다.

270여 개 시민사회단체연대기구인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하고 시상하는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15년의 전통과 명성이 높은 NGO모니터단 우수의원상을 받는 것은 지역구를 맡은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크나큰 영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체 16개의 국회 상임위원회가 국정 전반을 조사하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피감기관이 역대 최대 규모인 627곳이나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소속되

어 있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가장 많은 104개 기관을 감사했고, 총 감사시간도 167시간을 기록하여 감사일정을 같이 하는데 만도 체력적 소모가 매우 컸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초부터 증인채택 등의 이유로 파행과 지연이 계속되어 그 지루한 정치적 싸움을 하는데도 강인한 정신력 또한 요구되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NGO모니터단위원님들께서는 한결같이 전 과정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이러한 열정적인 위원님들의 모습이 저에게 자극제가 되어 국정감사를 끝까지 잘 마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권을 맞아 처음 치르는 국정감사인 만큼 피감기관의 규모도 사상 최대에 이르렀고 증인채택 또한 200명에 이르는 등 국가 전반 구석구석에 대해 엄중하게 감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규모에 ‘겉핥기 국감’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고, 특히 교문위는 역사 교과서에 대한 논쟁에만 매몰돼 굵직한 교육 이슈들을 놓치는 등 ‘불량 상임위’의 오명을 계속 이어오게 되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의미 있는 국정감사를 치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두 번째 치른 국정감사이기에 1년 반 동안 지역구를 비롯하여 기관과 단체 등 많은 사람들을 만나 사회 곳곳의 문제점을 논의할 수 있었고, 이 철저한 준비를 토대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강도 높은 비판과 질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미력이나마 국가와 국민에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되어 수상의 감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의 아쉬움을 교훈 삼아 그리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우수국회의원상’의 수상을 발판 삼아 앞으로도 더욱 겸허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국가와 국민을 진심으로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NGO모니터단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에게 많은 지지와 응원을 주시는 송파갑 지역 주민 여러분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한한 발전을 기원하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

끝으로 국회의원으로 처음 당선되었을 때 마음 그대로 헌법 제46조 국회의원의 의무 - 청렴의 의무, 국익 우선의 의무,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 를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 12. 10 국회의원 박 인 숙

■ 외교통일위원회 박병석 의원

안녕하세요.

국회부의장 박병석(민주당, 대전 서갑) 의원입니다.

201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전국의 270개 분야별 전문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온·오프라인에서 1천여 명이 모니터하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권위와 15년 전통을 잘 알고 있기에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총 11번에 걸쳐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고 18대 국회 이후 6번 연속 수상이라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저는 국회부의장이 되어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반듯하고 진솔하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수상의 영광을 주신 ‘국정감사NGO 모니터단’의 관계자분들과 성실하게 국정감사를 모니터하신 1천여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외교통일위원회 심윤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윤조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남갑)입니다.

먼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이라는 뜻 깊은 수상의 기쁨을 전해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직 더 많은 배움과 가르침이 필요한 제게 연이어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해주신 것은 더욱 열심히, 그리고 보다 낮은 자세에서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여 국가 발전을 위해 더 큰 노력을 하라는 격려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수위원 선정을 계기로 대한민국 외교·안보 발전의 일선에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20일간의 국정감사기간 동안 부지런히 발로 뛰며 꼼꼼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국회의원의 올바른 의정활동을 제시해 주신 모니터단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현장국감과 정책 대안제시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국감 시작 전 국립외교원, 영사콜센터, 대안학교 등을 보좌진들과 사전 방문해 현장의 시설과 운영실태,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살피고, 관련 정책보고서 및 법률안 개선안을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감에서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선발 과정의 문제점 및 교수요원 채용부진 문제를 지적해 대안을 이끌어 내었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과 정책 방향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재외동포에 대한 한글 및 정체성

교육 강화를 주문하였습니다. 더불어 통일부의 실효성 있는 북한인권 사업 추진을 촉구하였고, 북한주민의 마음을 얻는 대북 인도적 지원 및 호혜적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확충을 통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활성화를 주문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문제와 관련하여 하나원 내 탈북청소년 언어교육 시수 확충을 제안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차상위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 확충 방안 강구를 촉구하였습니다. 더불어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직계비속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통일부의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국가의 정책을 점검하고 미진한 점들을 검토·보완하는 국정감사는 국회 고유의 권한입니다. 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다양한 외교·통일안보 현안과 문제점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개선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으면서 항상 국민을 섬기며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 국정 운영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방위원회 김종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국방위원회 김종태 의원입니다.

2013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에 선정되어 개인적으로 무척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평가를 해주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김대인 총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상은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갖춘 상으로서 기관이나 언론이 아닌 객관성과 공신력 그리고 15년의 전통성을 갖춘 국민의 대표로부터 받는 상이기에 그 어떤 상보다 뜻 깊은 수상이라 생각합니다.

국정감사는 대한민국 『헌법』 제61조에 따라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헌법이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가슴 깊이 새겨,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지난해보다 73개 기관이 늘어난 총 630개 기관을 감사하는 헌정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되어 그 어느 때 보다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정책 국감으로서의 본 취지는 실종된 채, 호통과 고성으로 오가는 정치국감으로 변질되었으며, 20여일의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쟁과 구태가 난무하여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깊은 책임감과 자책감을 느낍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 국방위원회 감사위원으로서 강력한 국방력

건설과 흔들림 없는 안보태세 유지에 주안점을 두고 국정감사에 임하였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비판과, 비판을 위한 비판 등 세간의 이목을 끌기위한 이른바, ‘반짝’ 국감용 질의를 지양하고, 여당 간사로서 큰 틀에서 현재 우리의 튼튼한 국가안보를 위해 국방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방위력 개선과 함께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한 대안과 개선책 마련에 힘을 쏟았습니다.

모쪼록 지난 15년간 국민의 대표로 국정감사를 함께 해오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김대인 총괄단장님과 국정감사 기간 내내 현장을 지키고 꼼꼼히 평가해주신 모니터 요원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끝으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이라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뜻을 받들어 앞으로 더 열심히, 더 잘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알고 몸을 더욱 낮추고 결코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배전의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3년 12월 10일 국회의원 김 중 태(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위원)

■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

2013년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우수국회의원 수상 소감문

이름 모를 나무들이 그들의 잎들을 토해내며 가을을 삼키고 고즈넉한 풍관이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음을 느낍니다. 15년 전통의 ‘국감NGO모니터단’에서 2년 연속 우수국회의원으로 수상하게 되어 風餐露宿의 마음으로 달려온 2013년 한해를 훈훈하게 마무리 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속에 행복이 쌓이도록 노력한 만큼, 시민과 사회단체에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더욱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의 정의로운 관심과 적극적인 실천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을 견고 올바른 정치라는 나무에 물도 주고 거름을 줘서 우리의 쉼터를 만들기 위해 밤을 낮 삼아 노력해왔습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국회의정활동의 백미인 국정감사를 15년간 공정하게 평가하는 일이야말로 정의로운 관심과 적극적인 실천이라고 판단됩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공정한 평가와 활동 덕분에 국회의원과 국민 간 불신을 견고 함께 어울리는 ‘우리의 쉼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의 쉼터는 대한민국 국민 뿐만 아니라 재외국민도 함께하는 세계적인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과 국가에 유익한 축제가 문화와 역사가 되도록 불철주야 노력하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사회의 등불이 되어준 NGO관계자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저도 항상 일관된 初心의 자세로 국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 12월 10일 국회의원 안 규 백

■ 국방위원회 정희수 의원

올해 수상으로 8년 연속 수상이라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맡은바 책임과 소임을 마땅히 해왔을 뿐인데, NGO모니터단으로부터 오랜 기간 연이어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게 되니 쑥스럽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간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던 노력이 조금은 인정받는 것 같아 기쁘기도 합니다.

금년도 국정감사는 지난해 대선 후 첫 국정감사로 제가 소속된 국방위원회에서 새정부가 나아가야 할 국방정책을 제시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군 전력 강화 및 자주국방 실현이라는 목표를 이루고자 보좌진과 함께 밤을 새가며 매진했습니다.

국방위원회 전체적으로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댓글 의혹과 논쟁으로 다양한 현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아쉬운 생각이지만, 저는 특정 현안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으며, 더 나은 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오늘의 값진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대표라는 초심을 잃지 않고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국가와 국민의 행복을 위하는 성실한 일꾼으로서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민을 대표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신 모니터단 자원봉사자 여러분, 김대인 상임공동단장 및 NGO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향후에도 시민사회의 성숙과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 12. 10 국회의원 정 희 수(새누리당, 국방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

안녕하세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민주당, 인천 남동구갑)입니다.

먼저 2년 연속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구나 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공신력과 권위를 갖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모니터위원 1천여명이 손수 뽑아주셨기에 더욱 기쁩니다.

문득 지난해 국회의원으로서 처음 국정감사를 치렀던 시간들을 떠올려봤습니

다.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 가졌던 그 마음으로 국회의원직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국민을 대신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정 감사를 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열정으로 동분서주했던 국정감사였습니다.

2013년 국정감사는 새정부 들어 처음으로 치러진 국감으로 새 정부의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민생·정책 감사를 다짐했기에 국민의 기대가 높았으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사건 등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데 시간을 보내며 국민들의 눈높이를 충족시켰나 하는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 한달간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안전행정부, 경찰청, 중앙선관위, 소방방재청 등 중앙부처와 서울·경기·강원·대구·경북·경남 등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잘못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보았습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지역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격려와 성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서민들의 작은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잘 살피고 돌보겠습니다. 오늘을 본보기 삼아 앞으로 더욱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한결같은 자세로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세워주신 깊은 뜻을 가슴에 새기고, 성실한 의정활동과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로 지역민과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12. 10 국회의원 박 남 춘 (인천 남동구갑)

■ 안전행정위원회 윤재옥 의원

제19대 국회가 시작되고 첫 번째 국정감사이자 생애 첫 국정감사인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 이어 올 국정감사에서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면을 빌어 2년 연속 국정 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박근혜정부의 성공에 있어 매우 중요한 관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정감사의 기본취지인 정부의 정책 집행을 감시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한다는 원칙 아래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국정감사인 만큼 여당 국회의원으로서는 안정적 국정운영의 책임감은 물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민의 대표로서의 의무와 도리 그리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성실한 자세와 진솔한 모습으로 국정감사에 임한 결과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NGO단체 여러분들이 주신 이 상의 의미를 누구보다 무겁게 받아들이며, 19대 국회동안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라는 뜻으로 알고 남은기간 더욱 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만하지 않고 지역구 주민들께 고개 숙이며 소중한 한 표를 갈구했던 초심의 마음을 되새기겠습니다. 언제나 한결 같은 의정활동으로 국민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회의원으로 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2013년 풍성한 결실로 좋은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 안전행정위원회 황영철 의원

정치적 쟁점과 여야의 대치 속에서 얻어낸 민생 국감의 값진 성과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이번 국감은 그 어느 때보다 민생국감, 깊이 있는 정책국감을 하고자 다짐하였습니다. 국정원 댓글논란, 남북정상회담대화록 사초 실종 등 정치쟁점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는 상황에서 민생이 주가 되어야 할 국감이 정치적 이슈에 매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걱정이 앞섰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여당간사로서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민생을 위한 국감을 치르고자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으로부터 지난해에 이어 다시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니, 민생국감을 위한 저의 노력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 다행스럽습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급작스럽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로 사보임을 하였습니다. 지난 5년 농촌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민의 바람을 살피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만 활동하다 새로운 상임위로 옮기게 되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국민과 민생을 위한 일은 어느 상임위라도 똑 같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성심을 다해 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은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깊이 국민과 민생을 살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재선의원으로서 그간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연구하여 보다 실질적으로 국민과 민생을 위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국회에서의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홍천·횡성 지역주민들께 이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서민과 농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초심 변치 않고 서민과 농촌의 현실을 더욱 깊이 살피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재원 의원

2013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수고해주신 1천 여명의 평가위원분들과 270여 시민·사회단체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내 최고 권위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 모든 성과는 우리 군위군·의성군·청송군민이 지지하고 격려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책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초심을 잃지 않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해 국민들을 섬길 수 있는 김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의원입니다.

19대 국회에서 2년 연속으로 국정감사에서 우수국회의원에 선정되어 개인적으로 무척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평가를 해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김대인 상임공동단장님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상은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갖춘 상으로써 기관이나 언론이 아닌 객관성과 공신력 그리고 15년의 전통성을 갖춘 국민의 대표로부터 받는 상이기에 그 어떤 상보다 뜻 깊은 수상이라 생각합니다.

국정감사는 대한민국 『헌법』 제61조에 따라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헌법이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가슴 깊이 새겨,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국정감사는 국가안보·사회안전·국민행복 등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감시를 통해 국가발전과 국익증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감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폭로성·한탕 국감을 지양하고, 정책 국감을 지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 소외받고 외면당한 우리 ‘농업의 지킴이’이자 ‘대변인’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농어민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5천만 국민 모두의 고향인 농어촌과 우리의 농축·수산업은 시장 논리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 포기해서는 안 될 핵심 산업입니다. 현재, 1차 산업에만 머무르고 있는 농축·수산업을 6차 산업으로 육성시켜 농민의 소득과 희망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의 정치소신인 ‘농어촌·농어민이 잘살아야, 대한민국이 강한 나라가 된다!’는 일념을 바탕으로 국정감사에 임했습니다. 기상재해와 다국적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어민을 먼저 생각하고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농어촌 발전을 위한 대안과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모쪼록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이라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뜻을 받들어 앞으로 더 열심히, 더 잘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알고 몸을 더욱 낮추고 결코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배전의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3년 12월 10일 국 회 의 원 홍 문 표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상훈 의원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를 마치고,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13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이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간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국정감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NGO모니터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 공론화, KOTRA 해외 무역관 사업의 과도한 의전, 한전의 분쟁해결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 무허가 가스시설 관리대책 부재, R&D자금의 미숙한 관리 등 산업, 통상, 자원 분야의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이렇듯 이번 수상은 정치적 이슈를 지나치게 부각시키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기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해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대안제시로 정책을 리드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정감사장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일시적인 비판에만 그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했던 부분들이 현장에서 잘 반영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하여 주신 NGO모니터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늦은 밤까지 저와 함께 고생해 준 저희 의원실 가족들의 열정과 노고에도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끝으로, 저를 믿고 국회에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대구

시민들께 이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고통 받는 우리 서민들을 두루 살필 줄 아는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 더욱 깊이 성찰하고 분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

2013 국정감사를 마치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실물경제를 전담한다. 산업계 전반과 자원 그리고 국제적 거래질서인 통상현안을 담당한다. 그리고 지방 균형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중소기업간 격차 해소를 통한 상생협력 촉진도 중요 현안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이번 국감은 지난 MB정권의 실물경제를 평가하고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을 집중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었다. 특히 지난 대선 여·야 할 것 없이 중점 화두는 경제민주화는 지금도 각종 경제 정책의 큰 틀로 논의되고 있다. 잘사는 사람만 더 잘살게 되는 구조를 바꾸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경제민주화의 핵심 과제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올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장은 여야 모든 의원들에게 특별히 경험이었을 것이다. 많은 의원들이 어느 때보다 ‘열’과 ‘성’을 다하려고 노력을 경주했다고 자평해본다. 이 과정에서 경실련 ‘우수국감의원’, 조선비즈니스 ‘국감베스트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는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깊게 새기고 있다.

국감의 구체적 성과를 꼽는다면 교육용 전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오히려 산업용보다도 비싼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는 틀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공유했다. 때문에 산업부장관은 국감에서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 교육용에 대해서는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어린 아이들이 여름이면 찜통교실에서 겨울이면 냉방교실에서 고통 받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전력시장에 대한 개선방안이 추진된다는 점에서도 보람을 느끼고 있다. 그동안 전력시장은 용량정산금(CP), 제약발전(CON), 제약비발전(COFF) 등 일반인의 상식과는 동떨어진 각종 정산금제도로 민간발전사에 특혜를 주었다. 전력거래소는 국감을 마치고 바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산업부와 한전도 개선방안마련에 들어간다.

에너지 관련 공기업 임원진의 성과급 반납도 보람으로 삼고 있다. 공기업의 운영 문제와 비리는 부메랑이 되어 언제든 국민들께 피해로 돌아온다. 예컨대, 석유공사는 MB정부 5년간 6개 광구개발에 10조 2382억원을 쏟아 부어 수입

은 고작 230억 원이었다. 이제 19조원으로 늘어난 석유공사 부채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공기업 임원들의 성과금 반납은 정치권뿐 아니라 청와대도 공기업 개혁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결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와 함께 이번 국감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박근혜정부 출범에 따른 에너지의 공정성과 대중소기업의 상생문제다. 따라서 공기업과 한국수력원자력의 방만 경영, 비리문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약탈적 행위들을 파헤치고 추궁하는데 열심히 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전기와 가스, 석유정책의 공정성에 무게중심을 두었다. 우선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심사 자체가 특정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점수를 배정한데다 평가과정도 공정하지 못한 사실을 밝혀내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작년과 올해 비리로 정지한 원전으로 인한 3조5000억에 달하는 국민부담액 문제도 제기했다. 고장난 발전기를 계속 돌리다 아예 망가트리거나 경량골재를 개발한다며 수백억원을 혈세를 낭비한 공공발전사의 방만한 경영과 안전불감증을 질타했다. 민간발전사의 가스도매업 진출에 대한 문제점과 석유공사의 방만한 자원개발도 추적해 공개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고수익 은행들의 소상공인 보증외면 실태, 정부의 허구적인 성장사다리 정책, 공기업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정책 등을 비판했다.

이제 국정감사는 새롭게 변화를 시도할 때다. 산업통상자원위에는 30명의 위원이 있는데, 많을 때는 하루 동안 10개가 넘는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질의시간도 충분히 보장될 수 없는 구조다.

국감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선 지금처럼 20일 정도에 수십개 피감기관을 하는 게 아니라 산업과 에너지, 통상, 중소기업 등에 대해 시기별 국감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각득심(動脚得心)' 열심히 일을 해 민심을 얻겠다는 내용이다. 천안시민 그리고 국민들 곁에서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국회에 들어왔다.

올해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만큼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은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로 의정활동에 임했다. 내년 목표도 올해와 방식은 같다. 열심히 공부하고 시민들 속에서 답을 찾을 것을 다짐해본다.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

정책대안 제시! 민생현안 해결! 국정감사에 임하는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민주당 오영식 의원입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을 대단히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국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박근혜 정부 첫 해의 국정감사는 역대 최다인 628개 피감기관을 감사했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53개의 산업통상자원부 및 소관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역대 최대 피감기관을 감사하면서 시간적, 물리적 어려움과 소관기관의 불성실한 감사태도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견제와 보편적 복지, 일자리 창출 등 민생현안을 챙기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문제점을 밝혀내는 것뿐만 아니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지적하고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 급증과 부실한 해외자원개발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현재 수립중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 수요전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원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향후 계획을 수립과정에서 원전 비중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대형 재벌 유통업체들의 여전한 ‘갑의 횡포’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세계와 홈플러스는 불공정관행에 대한 자체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 피해 업체에 대한 보상을 약속 받았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중기전용매장의 운영 부실을 밝혀내고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판로지원책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홈&쇼핑의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과도한 수수료 장사가 여전하다는 것을 질타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많은 문제점이 개선된다고 해도 아직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정된 시간과 인력 속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은 국정감사였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어 부족한 저에게 이런 상을 주신 것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더욱 매진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얻은 성과는 잘 살려 실질적으로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미처 보지 못한 문제들은 더욱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국회의원 오영식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진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부산 동래 국회의원 이진복입니다.

먼저, 국정 운영 감시기구들 중 가장 공신력이 있고 전통이 있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에서 시상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천 여명의 모니터위원들과 전문 평가위원들께서 국회의 기능인 행정부 견제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정감사 기간동안, 함께 모니터링하시며 정부부처들이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작년 19대 국회에 등원하여 부여받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올해 2년차가 되었습니다. 1년차 당시 의정활동 중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의정활동을 통한 실질적인 대안 제시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3년 국정감사의 포커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자’였습니다. 현실을 간과하고 탁상행정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부 행정에 대하여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백화점 등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명품·비명품, 대·중소기업 간의 수수료 차별문제를 공론화 시켜 백화점 대표로부터 현실화 시키겠다는 확답을 받아 냈습니다. 또한 국내 산업단지 내의 화물차 통행 장애물들을 식별해내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현장에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좋게 평가해주셔서 ‘2013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수상의 영광이 있기까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동래 주민들 그리고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상을 앞으로 더 열심히 더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이진복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하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성남분당을 출신 국회의원 전하진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 어느덧 임기의 절반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2013년은 잠시도 쉴 틈 없는 한해였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국회 일정과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국정감사까지 여러 가지 아쉬움과 상념들이 뇌리를 스쳐갑니다.

끊이지 않는 공공기관 비리, 방만경영 등 많은 사안이 산적한 2013년 국정감사는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할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저를 지지해준 국민과 우리 분당시민 여러분이 함께 하셨기에 제 소신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고, 가장 큰 영광인 ‘2013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기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3년 국정감사를 통해 공공기관에서 무분별하게 발행되어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킨 CP발행 절차를 지적하고, 경영 감시자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사회에 대한 책임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또한, 고질적인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기업 구조조정 특별위원회’를 제안하였으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비전제시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특히, ‘특허청을 미래의 국방부’라는 비전제시를 통해 급변하는 세계 특허시장에서 대한민국의 특허의 질을 높이도록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대보증 문제와 함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이 잘 되고 있는지 집중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제가 2013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은 앞으로 국회가 명실 공히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힘쓰라는 채찍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의원 수상은 오롯이 우리 분당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정감사기간 동안 동고동락을 함께 해주신 NGO 모니터단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더욱 발전하는 국회의원 전하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전하진

■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입니다.

먼저,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해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선정되어 더욱 의미가 큰 상이라 생각합니다.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국정감사기간 동안 국감 현장에서 평가에 힘써주신 덕분에 저뿐만 아니라 300명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좋은 자극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선정되신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박근혜 정부 첫 번째 국정감사로, 기초연금안을 비롯하여, 장애인 연금 대상자 축소, 4대 중증질환 의료비 100% 보장 등 주요 공약이 후퇴한 점을 지적하고, 아울러 4대 중증질환으로 한정할 경우 그 외 질환의 비급여 진료비를 상승시키는 ‘풍선효과’를 유발시킨다는 점, 원격의료 허용으로 인한 일차 의료기관 붕괴 등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국정과제와 중점

과제에 제동을 걸어 문제점을 상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우수위원으로 선정해주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2013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가족, 친지, 지인들과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국회의원 신의진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우수국회의원’에 선정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더불어 항상 따뜻한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더 열심히 하라는 응원의 뜻으로 받아드리고 계속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가 바로 엇그제 같은데 벌써 두 번째 국정감사를 마쳤다는 것에 감회가 남다릅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복지재정 누수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복지재원 확보에 대한 다각도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주문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발맞추어 국민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식품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조혈모 세포 조정비용 및 인체조직의 무분별한 관리체계 등 정부의 주요정책들의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일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제대로 개선되어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고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잘 집행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통하여 국민을 위한 정책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날 올바른 복지행정으로 가는 길에 밝은 등불 역할을 해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국민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가르침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

201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서 선정해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서 노동 및 환경분야에서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정책 및 행정집행 사항에 대해 평가하고 검증했습니다. 또한 각종 노동·환경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나름대로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분야에서는 △정부의 전교조, 전공노 탄압의 부당성 지적 △대기업에서 하청업체로의 '위험의 외주화', 대기업의 산재은폐 문제 공론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청년인턴제 등 정부 일자리 정책의 문제 지적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촉구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 대책 촉구 등 국가예산 절감 및 기금운영관리 강화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환경분야에서는 △4대강 부실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검증 △기상청 장비구매 비리문제 해결 촉구 △부산시민공원 부실 토양오염 정화 문제 공론화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검출 대책 촉구 △수도권 미세먼지 대책 촉구 등 정부정책과 사업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올해 국정감사에게 지적하고 제안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 「기간제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의 개정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상임위 활동에서도 이러한 의제들을 계속해서 챙겨나가고, 제도개선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단장인 김대인 법률소비자 연맹 총재님, 270여개 시민단체 회원, 그리고 국정감사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1,000여명의 모니터단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짐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대표로서,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정부의 행정집행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며, 법제도 개선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토교통위원회 신장용 의원

우선 20여일의 기간 동안 19대 국회 2차년도 국정감사를 평가하기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은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공동단장님을 비롯한 모니터 요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큰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지지를 보내 주신 수원시민 특히 권선구 주민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의정활동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국정감사에서 15년의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으로부터 국회의원으로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인정받았다는데서 보람과 함께 긍지를 느낍니다.

2013년 국정감사는 여러모로 의미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첫 번째 국감이라는 중요성과 사안별로 여야간 쟁점이 첨예한 상황에서 미력하나마 정쟁보다는 정책국감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2번째인 올해 국감을 맞이하여 네 가지 원칙을 세워 임하였습니다.

첫째, 당리당락을 떠나 국익에 부합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

둘째, 중산층과 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할 것

셋째, 탁상공론을 배제하고 현장에서 문제점을 파악하여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 강구를 촉구할 것

넷째, 폭로와 질타보다는 낡은 제도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것 등입니다.

이같은 원칙에 충실히 입각해 꼼꼼하게 준비를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방심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묵묵히 국민만 바라보며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생활정치인으로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

初心不忘의 마음으로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이노근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2013년도 국정감사 종합평가회 및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버처럼, 좋은 결과에 자만하지 않으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자세로 한해한해 의정활동의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변함없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3년 국정감사는 10월 15일부터 11월 1일까지 총 19일간 진행되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수십여개의 소관 기관들을 짧은 기간 동안 모두 감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지만, 공직생활 34년간의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주어진 시간동안 최선을 다해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김밥, 라면 등을 식당 매출을 올리기 위해 판매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한 결과,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모든 휴게소에서 컵라면을 판매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부

터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컵라면으로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둘째, 최초로 노사 단협에 고용세습 조항 현황을 전수조사한 뒤, 사례적발을 통해 관련기관장에 문제를 지적·대안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2015년부터 고용세습 전면 철폐’라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외제차 수리비가 터무니없이 높아, 교통사고 사망자들의 사망보상금 보다도 비싸다는 점을 강조한 결과, 국토부로부터 ‘일반 차량이용자의 손해가 최소화 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넷째, 고속도로 알뜰주유소가 일반 알뜰주유소보다 기름값이 더 비싸다는 점과 해당 협회의 기름값 담합의혹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소관기관인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일반 시중 알뜰주유소 이하로 가격을 내리도록 유도하고 해당 협회의 회원 간 비공개 사이트를 폐쇄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습니다.

두 번째 맞이한 국정감사를 통해 더욱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낍니다. 특히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민생정치의 실현이라는 신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초심 그대로 국민을 위해 우리 주변 지역민들의 현실과 목소리를 의정활동과 국정감사에 반영하여 민생국감, 정책국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고된 일정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생국감과 정책국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신 NGO모니터단의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2월 12일 국 회 의 원 이 노 근

■ 여성가족위원회 백재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기 광명갑 출신 백재현 의원입니다.

먼저, 국정감사 제도의 발전과 국회의 기능회복·강화를 위해 올해도 어김없이 수고해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저에게 항상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사랑하는 광명시민들과 이 기쁨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올해 국감은 이명박정부 5년을 결산하고, 박근혜정부 1년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의미가 있었는데, 큰 상을 받게 되어 대단히 의미 있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해주신 귀한 상을 4년 연속으로 받게 되니,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더욱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박근혜정부 들어 첫 번째인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소외와 차별 당하지 않고 사람답게 살 권리인 ‘민생과 인권(人權)’,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완전한

지방자치를 이루는 ‘지방분권(地方分權)’,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통한 ‘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의 세 가지 권리를 기본 컨셉으로 하여, 정권 교체 이후 새로운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출범한 첫 해의 국정감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은 없고, 정치적 대립만이 있는 국감’이 되는 것을 지양하여 예년보다 더욱 풍부한 정책 질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이번 국감에서 지적하고 선정된 의제들은 단순히 올해 국정감사의 문제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입법·정책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정감사를 준비하느라 수고한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 등 소관기관의 관계자들에게도 격려의 뜻을 전합니다. 국정감사제도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더욱 성실한 답변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성원해주신 광명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원들의 활동을 꼼꼼하게 평가해 주신 모니터위원, 평가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동시에, 행정부에 대한 견제·감시라는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발전과 관계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여성가족위원회 윤명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윤명희 의원입니다.

우선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의 수상할 수 있도록 따뜻한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고 꼼꼼하게 국정감사를 모니터링 해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국회의원의 충실한 국정감사활동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새누리당 최초의 농업비례대표로써 항상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계획을 내세우기 보다는 농민, 어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작은 것을 바꾸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다짐해왔고 이러한 소신에 따른 의정활동이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농업과 해양 수산분야에서는 개선되어야 할 많은 사안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一口二耳 (일구이이)의 성어처럼 말을 앞세우기 보다는 현장에 계신 농어민들의 말을 새겨들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꼼

꿈히 살피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은 제19대 국회 기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현장에서 고민하여 우리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일조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를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갑오년을 맞아 여러분 모두가 달리는 청마(靑馬)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새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여성가족위원회 전정희 의원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뽑은 ‘201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이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전국 27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문 평가단으로부터 받은 상이기에 더욱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격려와 채찍질로 알고 더 좋은 경제, 더 많은 복지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치러지는 첫 감사로, 저는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는 ‘전력난’의 원인인 전력계통운영시스템 비리를 지난해에 이어 집중적으로 파헤쳤습니다. ‘원전안전’, ‘동반성장’과 ‘해외자원개발’ 분야에서는 MB 정부와 현 정부의 실정(失政)을 국민의 시각에서 철저하게 검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롯데마트 등 유통대기업으로부터 공정거래 협약을 이끌어내며,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기틀을 마련한 것도 성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성매매 전문변호사와 존스쿨 제도가 청소년 성매매 사범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실상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밖에 여성가족부가 여성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로 내몰고 있는 실상을 고발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주문했습니다.

숨 돌릴 틈 없이 정기국회 일정을 소화하다보니, 어느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올 한해를 되돌아보면, 언제든 지친 몸을 기댔 때마다 안아주며 ‘고생했다’고 토닥여주는 지역구가 있어 든든했던 것 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시민들께 이번 수상의 영광을 돌립니다. 2013년 정기국회는 끝났지만 ‘민주주의와 민생 회복’을 위한 전정희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끝으로 국민이 행복하고, 서민이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는 약속으로 수상 소감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